

## 中等學校 體育教育課程의 改善方案

姜 信 福  
(體育教育科)

### I. 緒 論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은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건강의 실천은 운동을 통하여 어릴적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은 평생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학교 청소년학생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에 대한 중요성의 입장에서 최근 학교체육교육의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체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체육의 개선을 위한 과제는 방대하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과제는 학교체육교육과정의 개선연구이다. 특히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새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요청되고 있다. 그 한 예가 사회에서 체력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 되어감에 따라 체력육성을 위한 운동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이 개혁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체력은 체육의 목표로서 간주되어 왔지만, 활동자체로서의 독자적인 체력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 세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체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적 뒷 받침의 예를 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83년 미국 일리노이주 교육국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청문회를 열고 공개협의회를 거쳐 교육의 6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중 첫째로 내세운것이 주민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내 세웠다. 그리하여 체력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1990년에 가서는 10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의 90% 이상이 체육활동(특히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것을 장기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학교체육은 전통적으로 경쟁 스포츠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며 평생동안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운동기능 발달에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체육에서의 운동기능 터득이나 스포츠의 참여는 어느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 한국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몇몇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국민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정과체육을 모두 이수했으면서도 체력이나 운동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운동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미 각국에서는 수년동안 체육프로그램운영 면에서 큰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① 교사는 새로운 지도 방법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다. 한때는 움직임 교육의 개념에 입각한 체육 지도가 별로 큰 인기가 없었는데 인본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움직임 교육위주의 체육 지도가 특히 국민학교 단계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② 여학생의 운동참여가 사회적인 가치기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여학생의 운동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 남녀의 운동참여 기회는 균등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여학생의 대외경기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케 되었으며,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팀의 수가 많은 현상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팔목할 만한 변화는 경기의 고조된 비중이 낮아지고 전 학생을 위한 전이성이 높은 평생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③ 오늘날의 체육프로그램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우게 되고 자신의 목적에 의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운동의 기본 기능을 터득케 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체육학회에서 발간되어 널리 일선 각급학교에 보급시키고 있는 책자인 기초 자료집 「Basic Stuff」의 교재 성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의 발간 목적은 각급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위한 기본 교육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운영의 기본 모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④ 오늘날의 체육 교육은 신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체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기능을 가르치고 운동하는 방법만을 터득하는데에만 관심을 쏟는다해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지도교사는 움직임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각 개인의 스포츠 기능을 왜 배우는지 그 이유를 납득시켜야 하며, 스포츠 참여에의 만족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으며, 즐거운 것이며, 또한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체험토록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외국 각급학교에서의 체육교육과정 개선 연구 동향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개선의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각 교과와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教育自治制가 앞으로 도입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서 큰 변화가 올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文敎部가 중앙부서로서 이를 주관하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엄격히말해 교육과정의 기본틀 또는 골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장학교교육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부 교육과정 수준까지는 손을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육자치제에 대비키 위해서도 학교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수준에서의 체육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體育教育課程의 現況과 問題點

### 1. 體育 目標設定의 非合理性

學習의 目標은 곧 학습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目標은 學習內容(subject matter)을 수단으로 하여 학습자를 어느쪽으로 성장시켜 갈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목표의 합리적인 설정과 운영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재 각급 학교 현장에서 안고 있는 학습목표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체육목표의 分類와 目標間의 比重을 어떻게 달리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육목표는 여러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분류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發達의 均衡성을 고려하여 구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Bloom(1956, 1964) 등은 비록 人間の 行動特性의 입장에서 心動的 영역(psychomotor domain), 情意的 영역(affective domain), 認知的 영역(cognitive domain)으로 목표를 구분하고 있지만 인간발달의 균형성을 감안한 全人的인 발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어린이는 교육적 경험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져 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全機能的 人間(the fully functioning individuals)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육교과교육에서 Bloom이 분류한 세 목표영역의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어느 기준에서 분류하며 어느 범위까지 교과의 독자적 목표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Kane(1974)은 200여종 이상의 전문문헌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9개 일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운동기능(motor skills), ② 自我實現(self-realization), ③ 여가(leisure), ④ 정서안정(emotional stability), ⑤ 도덕발달(moral development), ⑥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⑦ 기관체력발

(organic fitness development), ⑧ 인지적 발달(cognitive development), ⑨ 미적 감상력(aesthetic appreciation)

Kane이 분류 제시한 이들 체육의 9개 일반목표는 Bloom의 三大目標分類준거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으며 또한 技能터득, 여가추구, 기관체력발달과 같은 明示的 目標(overt objectives)와 미적 감상력, 도덕 및 정서발달과 같은 暗示的(또는 潛在的) 目標(covert objectives)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각급학교 현장교육에서는 지도교사의 체육지도철학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心動的 領域 또는 明示的 目標測面을 주로 강조하고 情意的 領域과 認知的 領域 目標 또는 暗示的 目標에는 비교적 소홀히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체육교과목표들이 Bloom의 3대목표영역을 망라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목표로서의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 실제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체육목표영역에 편중되어 계획운영되고 있는 실정인어서 체육목표설정운영의 비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체육목표진술의 상세성과 위계성의 문제이다.

체육목표는 一般目標와 細部目標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세부목표는 일반목표의 하위목표로서 성취되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각급학교에서는 일반목표와 세부목표진술의 모호성으로 설정목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업계획단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각 설정목표에 대한 위계성과 통합성의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목표설정의 수준이 학습자의 요구, 능력, 性·연령과 같은 여러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또한 체육목표설정의 전통적인 접근은 각 목표영역간의 횡적 연관성과 통합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영역별로 분리하여 목표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표설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소기의 학습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학습목표와 예측되는 학습 결과와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학습목표는 기대되는 학습의 결과에 따라 탄력있게 설정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데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결과의 기대치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어서 學習의 설정목표와 그 結果간의 관련성이 희박한 편이다.

Eraut와 그의 연구팀(1975)이 개발제시한 目標—結果 相關모형과 최근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行動目標(behavioral objectives)의 개념 모형 등은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체육학습 目標의 진술체제는 단일모형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를 보다 상세화 한것이 行動目標(또는 遂行目標)라고 할 수 있다. 行動目標의 主要 구성요소는 條件(conditions), 水準(levels), 그리고 終着行動(terminal

behavior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를 엮는 목표진술방식에 의거하여 체육학습의 영역과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체육학습활동중 藝術性을 내포한 運動遂行, 이를테면 체조, 다이빙, 무용 등과 같은 활동은 행동목표로 객관화하여 충분히 진술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Eisner(1969)가 주장하는 대체진술방식의 하나인 表現目標(expressive objectives)와 같은 목표진술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Eisner(1969), Stenhouse(1970~1975), Pring(1973), 그리고 Sockett(1976) 등은 학습활동이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계획으로서의 學習目標設定 그 자체를 회의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형태이든간에 '目標模型'도 교수학습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펴고 있다. 특히 Pring(1973)은 事前設定目標에 대한 不合理性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전에 설정된 상세화목표는 학생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왜냐하면 각 학생은 자신의 과거경험을 토대로하여 새 학습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영학습에서 어느 학생은 물에 대한 공포로 입수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학생은 처음부터 기꺼이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기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둘째, 目標이 미리 설정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판단, 또는 평가에 의한 학습성취수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反하여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역설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Davies(1976)는 훌륭한 教授(teaching)는 철저한 사전준비계획(planning)과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학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전에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수업지도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비판적 관점을 우리 학교체육교육의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적절히 수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연구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 2. 體育內容 選定組織의 非體系化

體育內容은 앞서 논의되었던 體育目標를 具現하기 위한 手段的 活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중등학교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체육교육과정 내용선정과 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체육내용영역별 시간할당량의 책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중등학교의 체육내용은 내용(contents)의 특성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고 이 구분지어진 영역별로 일정량의 교수학습시간이 할당되어왔다. 1981년 12월 31일 문

교부 고시 제442호로 공포되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의 內容영역을 보면 육상운동, 체조, 개인 및 대인운동, 구기, 수영, 무용, 체육이론, 보건 등 8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육상경기, 체조, 구기, 평생스포츠 및 야외활동, 투기(남), 수영, 무용, 체육이론, 보건 등 9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현재 각 중등학교에서 체육내용영역별 시간할당비율은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의 장학지침에 의거하여 시달되고 있지만 체육을 직접지도하고 있는 담당교사에게 그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도교사의 교과내용시간할당의 준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획일적이며 편중된 시간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교사간, 학교간, 그 할당비율의 폭이 크게 달라 교육과정운영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내용의 시간할당은 학습자의 성장단계, 학생의 능력과 요구, 학생의 性, 학교조직, 내용의 특성, 시설, 용구, 예산, 지역과 기후, 학교와 사회의 철학 등과 같은 여러 여건과 특성에 따라 탄력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남녀공학 체육프로그램에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의 문제이다.

학교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로 하는 性別에 의한 분리교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교육은 그 프로그램에서 二元化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요구변화와 교육철학의 변천으로 인하여 남녀공학의 분리가 계속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 최근의 일부 신설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에서 남학교 94개교(35.3%), 여학교가 88개교(33.0%), 남녀공학이 84개교(31.6%)이어서 전체 중학교의 약  $\frac{1}{3}$ 이 남녀공학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수년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남자학교 83개교(50.6%), 여자학교 66개교(40.2%), 그리고 남녀공학이 15개교(9.1%)이어서 중학교에 비하여 남녀공학의 비율이 낮지만 이는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남녀공학의 학교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체육교육은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남녀공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coeducational programs for physical education) 내용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학교 체육은 움직임교육의 개념 위주로 그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전통적인 게임이나 스포츠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1968년 美國體育學會(AAHPERD) 용어분과 위원회에서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용어를 놓고 학교체육과 관련시켜 그 개념을 규명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 다음과 같이 용어의 개념을 풀이 하여 보고하였다(Corbin 1976~1977).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은 체육(physical education)과 그 용어상 같은 개념이

다. 따라서 움직임 교육은 체육의 일부영역이 아니며 체육과 다른 독립된 교과 영역도 아닌 체육 그 자체의 개념과 같다. 그러나 움직임 교육철학은 종래의 체육 철학과는 달리 그 방법면에서 좀 달리 하고 있다. 움직임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창의력 개발 등 개별화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체육의 내용 소재는 움직임(movement)이기 때문에 신체(physical) 보다는 움직임이란 용어를 채택함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움직임 교육과 관련시켜 탐색운동(movement exploration)은 체육(움직임교육)프로그램의 한 내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탐색운동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기본운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용어 탐색(exploration)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유로운 경험 활동과 표현 활동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탐색 운동이 그 실효성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도 믿고 있다. 특히 일선 각급 학교에서의 체육내용구성은 주로 지도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학생중심에 의한 수업 분위기를 전제로 하는 움직임 교육이나 탐색운동은 우리 실정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선 학교의 교사중심에 의한 수업상황에서는 보다 체계화, 조직화, 형식화된 전통적인 게임이나 스포츠 위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고 지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내용구성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중심에 의한 전통적인 접근과 새로운 움직임 교육의 접근을 함께 감안하여 새로운 내용모형 정립을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중등학교 체육내용은 평생스포츠 중심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오늘날 학교체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체육도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평생체육은 한정된 기간 동안의 학교체육의 범위를 벗어나 전 생애의 사회체육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평생체육은 그동안 연령층별로 구분된 폐쇄적 학교체육과 조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회체육을 垂直的이며 水平的으로 統合運營되는 교육적인 全過程을 그 範圍로 삼아야 한다.

“平生스포츠”(lifetime sports)는 평생동안 한 개인이 스스로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스포츠 활동을 뜻한다.

미국체육학회 평생스포츠 연구팀의 주장은 평생스포츠는 장기간 학습전이가 지속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간 후 여러해 동안(또는 평생동안) 체력이나 운동기능과 같은 여러 제한을 받지 않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를 들고 있다. 이들에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궁도, 수영, 조깅(jogging)과 같은 個人 및 對人運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생스포츠 종목이 우리 학교체육의 내용구성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평생스포츠 중심에 의한 내용구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3. 體育指導와 評價方法의 劃一化

설정된 목표도달을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느냐의 문제는 앞서 논의된 목표와 내용분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의 요소이다. 중등학교에서 관찰될 수 있는 체육지도 및 평가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체육지도에 관한 개발된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현장학습에 널리 적용되어 지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운동학습에 관한 여러 연구(Lawther 1968, Cratty 1973, Singer 1975)가 수행되어와 체육지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동기부여, 학습의 전이 등과 같은 학습지도에서의 지엽적인 변인에 국한되어 왔으며 또한 이들 연구도 대부분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학습지도 상황에 적용하려 들때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연구가와 실제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지도자와의 전문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학습지도 이론의 개발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체육지도에서 전통적 방법(traditional methods)과 새로운 방법(innovative methods)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체육지도 방법의 유형은 그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분류되어 소개 되었다. Mosston(1972)은 학습참여 과정에서의 의사결과 허용 수준이 교사와 학생 중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지도방법을 분류하고 있다. 7가지 지도방법은 지시학습, 과제학습, 상호학습, 교사중심 개별학습, 유도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그리고 학생중심 개별학습이다. 여기서 교사에 의한 의사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지도방법은 지시학습이며, 학생에 의한 의사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지도유형은 학생중심 개별학습이다. 교사중심 학습방법일수록 전통적 지도방법이며, 학생중심 학습방법일수록 새로운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서로 다른 지도방법이 체육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히 선택되어 활용되느냐의 문제는 교사와 학생에 의한 의사결정 허용 정도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특히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선택 또는 그 비율의 조정 문제는 지도교사의 철학, 학생의 특성, 교과내용의 특성, 수업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리 융통성있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등학교 체육은 성취모형 위주로 지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중



등학교 체육은 역학적 성취모형(achievement biomechanical model)에 입각한 철학에 의해서 체육지도가 이루어져 왔다. 경기에서의 성취(성공)를 위해서 스포츠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연마하여 시합장에서 필승을 기대해왔다. 필승이 곧 바람직한 결과(product)로서 그 자체를 높이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스포츠 경기가 곧 체육의 모든 현상이라고 까지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중등학교의 체육은 경기기능 위주로 지도되어 왔으며 대성한 운동선수의 기술이나 동작을 분석 모방하여 그대로 가르쳐 왔다. 이것이 역학적 분석 모형에 의한 체육지도 방법이다. 이 모형에 의한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을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압박감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못 찾고 있다. 결국 게임에서의 성취와 압박감은 깊은 상관관계가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역학적인 성취 위주 학습모형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사회적, 기계적인 관점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인간은 생체의 여러 부분을 합한 그 이상의 것이라는 Plato의 주장과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넷째, 체육지도에서 학생편성을 이질집단(heterogeneous groupings)으로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동질집단(homogeneous groupings)으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체육지도는 학년, 성, 학급과 같은 변인에 의해 편성된 학생집단별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체력이나 운동기능수준, 또는 자신의 취향과 적성과 같은 변인은 각급학교에서 널리 고려되지 않았다. 체육학습의 학생편성을 이질집단으로 하느냐, 동질집단으로 편성하느냐의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목표와 내용, 그리고 학생의 요구와 능력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다섯째, 체육학습의 정의적 영역 평가방법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의 문제이다.

체육학습의 정의적 영역은 사회성의 발달, 정서발달, 그리고 미적 감상력 발달 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태도를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는 태도를 어떻게 신뢰롭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 Ⅲ. 體育教育課程의 改善 方向

학교 현장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전제하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① 학습자는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참여하게 될때 학습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 ② 학습자는 누구든지 서로 사귀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③ 학습자는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며 그 운동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④ 학습자는 어느 한 기회에 어떤 운동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학생은 계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강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운동참여는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⑤ 운동 참여자는 자신의 체력과 운동 기능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 무리할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참여는 자아 주도적이어야 하며 참여자 스스로가 운동의 강도, 빈도, 시간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또는 동료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⑦ 다양한 신체활동 중에서 선택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때 보다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

2. 중고등 학교의 체육은 평생체육(life-long physical education) 위주로 그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체육활동에 참여 해야할 필요성과 욕구는 평생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체육활동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평생체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스포츠에 대한 태도 함양에 있다. 즐겨 스스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운동 또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지식과 기술 습득 과정이 요구된다.

3. 학습목표는 학습의 결과(product) 보다는 과정(process)에 치중하여 全人教育 측면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s)와 세부목표(specific objectives)로 구분지어 진술되어야 한다. 학습성취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학교 수준에서 行動目標(behavioral objectives)의 개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동목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현목표(expressive objectives)의 활용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4. 학습목표는 지역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설정되어 문서화 되어야 하며, 그 목표는 학습자의 특성, 요구, 기대 성취 수준 등과 같은 관련 요인을 감안하여 탄력있게 설정되어야만 한다.

목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즉, 이 목표에 따라서 학습 경험의 유형과 수준, 또는 기대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체력, 운동기능, 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리더쉽, 미적 감상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여러 발달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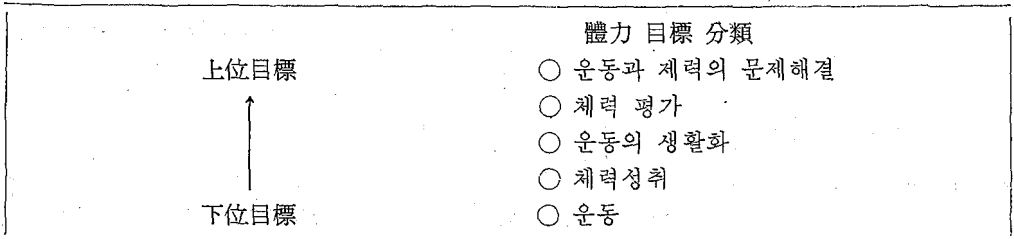
학습자의 요구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적 요구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파악키 위해서는 관련 평가자료, 조사, 학부모로부터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하여 목표 설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대되는 학습 성취 수준은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완료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수준으로서 개인차와 과거학습경험의 배경 등에 따라 탄력있게 적정화 되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가능한한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야만하며, 설정된 목표는 문서화 되어 지도자와 학습자에게 널리 공포되어야만 보다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다.

5. 중등학교 체육은 體力의 上位目標에 치중하여야 하며 아울러 概念接近에 의한 체육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우수한 체력 결과치를 얻어 내면 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했다고 성급히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실시중인 체력장제도 운영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궁극적으로 평생체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上位目標(이를테면 개인 체력의 문제 해결)를 성취해야만 할 것이다. Corbin은 아래와 같이 體力目標 분류 모형(Corbin 1980)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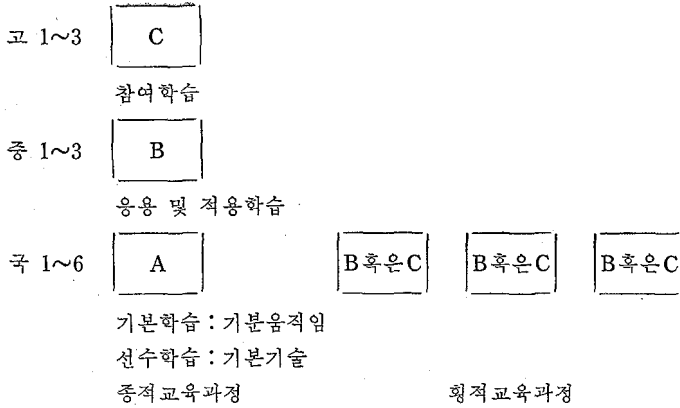


평생체력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體力의 개념접근(concepts approach)에 의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념 접근은 학습자 개개인에 초점을 두어 왜(why) 그가 운동을 해야 하며, 개개인의 체력이나 운동욕구는 무엇(what)이며 그 욕구를 어떻게(how) 충족할 수 있나를 터득하도록 관심을 두어야 한다.

6. 중등학교 체육내용의 選定과 組織은 從的教育課程 模型(그림 1 참조)에 입각하여 系列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각급학교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설정해야 할지 망서리게 된다. 설정된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범위와 계열의 적정선을 찾기란 힘든 일이다. 이를테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단계에 설정된 목표수준 만큼의 기관발달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어느 만큼, 어느 범위 수준까지 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균형화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위와 계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성 조직 되어야만 한다.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균형화하느냐의 문제는 지도교사와 행정가의 철학, 지역의 특수성, 시간수, 목표별 강조 비율,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발달특성, 학습방법, 수직교육 과정과 수평교육 과정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즉, 위에 열거된 요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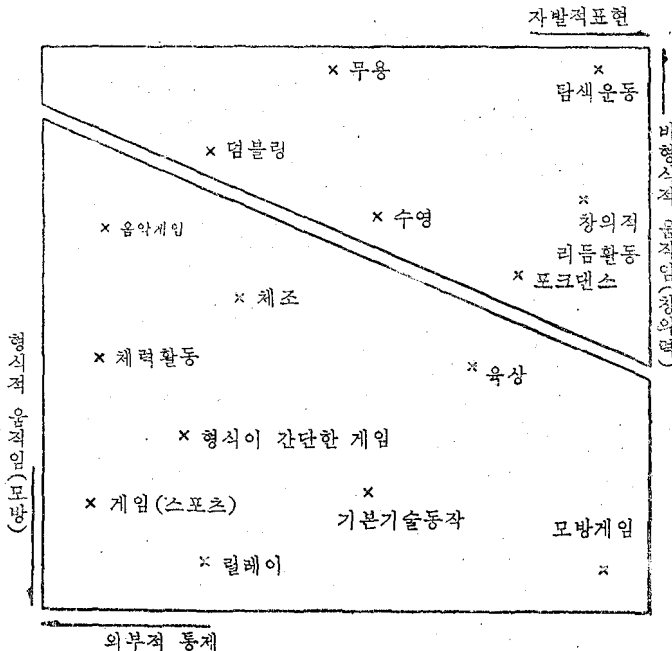
<그림 1> 종적, 횡적 교육과정 모형 (Corbin 1976 : 126)

상대적 비중에 따라 교육과정이 설정될 때 균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용선정은 설정된 목표에 입각하여 움직임의 형태(types of movement experiences)의 學習位階(그림 2 참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즉, 움직임이 간단하나, 복잡하나 또는 창의적이나, 모방이나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내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여러 운동종목은 그룹으로 묶어서 계획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운동, 개인운동, 단체운동, 리듬활동, 평생 스포츠 등으로 영역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각급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과 용구 부족, 예산의 부족,



<그림 2> 움직임 형태의 位階 (Corbin, 1976 : 130)

지도자 자질의 미흡, 행정가의 이해부족 등으로 다양한 운동종목이 골고루 이수되지 못하고 불균형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나 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문서상의 지침일뿐 계획대로 적용이 되질 못하고 있다.

8. 체육교육과정은 각 개인의 움직임기능의 발달과정과 발달 요구 수준을 관련지어 내용을 구성하고 지도되어야 한다.

움직임 내용은 스포츠 유형(sports forms), 무용 유형(dance forms), 운동 유형(exercise forms)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의 움직임 기능을 터득하든간에 다음과 같이 3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① 움직임 수행을 위한 조절 능력 터득→② 움직임 수행을 위한 세부 기능터득→③ 움직임 수행을 위한 운동 유형 터득 단계를 밟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 기능 발달 단계는 운동 참여자 개개인의 기본적 요구 발달과 서로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위 ①단계는 자아개념(self-concept)의 요구, ②단계는 자아존중(self-esteem)의 요구, ③단계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요구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때에 기능 발달의 과정과 요구발달의 과정을 결부시켜 계획 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이다. 체육내용은 단지 신체활동의 집합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움직임의 수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학습 개개인의 움직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을 여러 움직임 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각 개인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의 참여 과정을 통하여 즐거움과 성공감 등을 느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감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9. 중학교 단계(12~14세)는 국민학교 단계에서 터득된 기본 기능의 숙련에 강조 되면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갖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게임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내용은 각 개인의 발달특성과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즉, 운동영재, 일반내기, 운동 지진아, 장애자 별로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양한 게임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태도, 지식을 터득하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 부터 게임참여를 통하여 즐거움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과외자율체육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단위의 학교대항 경기 활동 기회도 확충되어야 한다.

10. 고등학교 단계(16~18세)는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부과되 자신이 보다 깊이 있게 학습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운동종목 선택의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선택된 운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해와 기능터득이 가능하고, 운동참여에 적극적이며 자신있고 즐거움게 참여할 수 있는 태도가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선택 프로그램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포츠에의 생활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한종목 이상의 평생스포츠 활동 기능을 터득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가족단위 또는 소그룹단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 게임,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프로그램도 도입 소개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지도는 각 개인의 개인차, 기능수준과 요구의 차이에 따라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과 같이 반편성을 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아울러 과외자율체육과 대교경기 활동도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

11. 각급 학교에서는 완전학습모형에 의한 체육교육과정이 개발 운영 되어야 한다.

완전학습모형에 의한 교육과정 계획운영은 일반 교과교육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아울러 성공의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모형의 적용연구가 활발치 못하지만 외국 각국에서는 이 모형에 의한 체육교육과정 운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특기할만 하다.

완전학습모형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①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진보도에 따라 학습되도록 허용 되어야 한다.
- ② 학습자에게 광범하고,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 ③ 교수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개개인의 학습자는 학습 참여의 개별화와 학습활동에서의 활발화가 요구된다.
- ⑤ 학습은 정규교과 경험활동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자유시간에까지 참여토록 유도 되어야 한다.
- ⑥ 운동기능 학습의 시기와 시간량 등은 각어린이가 같지않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 하여야 한다.

⑦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기능 성취수준을 탄력성있게 설정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12. 중등학교에서는 男女共學 體育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목표는 남녀학생의 개인차에 의거하여 탄력성있게 설정되어야 하며 학습자 각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어야 한다.

(2) 지도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性偏見(sex biases)을 拂拭하고 그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남녀학생에 대한 교사의 일관성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학생에게 체육의 지식 이해를 위한 과제를 부과할 때 남학생한테도 상응하는 적절한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3) 남녀공학 체육 프로그램에서 지도교사는 남녀학생을 유일한 개체로서 인정하여 각 개인의 특성, 요구, 그리고 흥미에 바탕을 두고 학습이 지도 되어야 한다.

(4) 남녀공학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츠의 방법, 규칙, 작전 등을 변형하여

남녀가 모두 부담없이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5) 남녀공학 체육은 내용중심이나 교사중심이 아닌 學習者中心으로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는 남녀공학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수행동과 전략 그리고 새 수업 모형을 개발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6) 남녀공학 체육지도는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개별화 학습지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계약학습(contracting), 패키지학습(learning packages), 튜토리얼 프로그램학습(tutorial programs), 독자학습(independent study)과 같은 개별화 학습방법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7) 남녀공학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스포츠 종목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복싱, 배스링, 유도, 럭비, 아이스하키와 같은 신체 접촉이 요구되는 접촉 스포츠는 남녀 격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접촉 스포츠를 남녀공학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적절한 게임방법 변형과 안전 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8) 프로그램 활동 종목과 내용선정은 남녀 운동 참여자와 각 개인의 특성, 배경, 요구, 흥미와 학교의 철학, 시설 용구 및 교사의 자질과 같은 여러 관련 여건에 의거하여 탄력있게 조직 되어야 한다.

(9) 남녀공학 학습을 위한 편성(grouping)은 운동 참여자의 체력과 운동기능수준, 요구와 흥미도에 의거하여 융통성있게 조직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조직은 전통적인 체계를 벗어나 모듈라스케줄(modular scheduling)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 더 효과적이다.

(10) 남녀공학 체육 프로그램 학습평가는 다양한 학습평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평가준거와 기준치 등을 학년 수준에 맞게 다원화하여 탄력있게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Ⅲ. 結 語

현재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인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교육과정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되어야 한다. 체육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체력을 유지·증진하여 개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체육교육과정 설계자는 창의력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하고 여러 개인의 요구에 충족키 위해서는 체육프로그램은 단일화를 지양하여 다양화 위주로 계획 조직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교육과정 모형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 지역의 특성, 학교의 여건, 시설, 용구의 상태, 행정가와 지도교사의 철학 등에 따라 교육과정은 탄력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姜信福. (1981), “體育教科의 役割과 內容의 改善方向”, 「學校教育制度 및 教育課程 發展方向 探索」, 교육과학사.
- 姜信福. (1984), “平生體育의 프로그램 構成方向”, 제 3 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姜信福. (1982), “學校 體育教育課程 運營의 正常化 方案”, 제 20 회 체육주간기념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姜信福. (1983), “體育教育課程의 現況과 改善方向”, 제 2 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姜信福. (1985), “學校體育教育課程의 改善方向”, 제 4 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姜信福. (1984), “男女共學 體育프로그램의 運營方向”, 제 22 회 하계 학술발표회, 한국체육학회.
- Bloom, et al. (1956, 1964), *The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Mckay.
- Corbin. (1976), *Becoming Physically Educated in the Elementary School* (2nd ed.), Lea and Febiger.
- Corb. (1980), *Physical Education News Letter*.
- Davies, L.K. (1976), *Objectives in Curriculum Design*. McGraw-Hill.
- Eisner, E.W. (1969), “Instructional and Expressive Educational Objectives: Their Formulations and Use in Curriculum,” in Popham, W.J. et al (Eds), *Instructional Objectives*, AERA Monograph 3, Rand McNally.
- Erout, M. and others. (1975), *The Analysis of Curriculum Materials*, University of Sussex Education Area, Occational Paper No. 2.
- Haag, H. (1978), *Sport Pedagogy Content and Methodology*, University Park Press.
- Jewett, A.E. and L.L. Bain, (1985), *The Curriculum Process in Physical Education*, Wm. C. Brown Publishers.
- Jewett, A.E. and M.R. Mullan, (1977), *Curriculum Design: Purposes and Processe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AAHPERD.



- Kane, J.E. (1974), *Physical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Macmillan.
- Logsdon and others, (1977), *Physical Education for Children: A Focus on the Teaching Process*, Lea and Febiger.
- Nixon, (1971), "Predicting the Future of Physical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for the Next Fifty Years," *The Next Fifty Years: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University of Oregon.
- Pring, R. (1973), "Objectives and Innovation: the Irrelevance of Theory," *London Educational Review*. 2. 3. pp. 46-54.
- Sanborn, M.A. and B.G. Hartman, (1982). *Issues in Physical Education*, (3rd ed), Lea & Febiger.
- Siedentop, D. and others, *Physical Education: Teaching and Curriculum Strategies for Grades 5-12.*,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Straub (1976), *The Lifetime Sports-Orien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Prentice-Hall.
- Sockett, H. (1976), *Designing the Curriculum*, Open Books.
- Stenhouse, L. (1970), "Some Limitations of the Use of Objectives in Curriculum Research and Planning," *Pedagogica Europea*. 6, pp. 73-83.
- Stenhouse, L. (1975), *An Introduction to Curriculum Research and Development*, Heinemann.
- Underwood, G.L. (1983),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Secondary Schoo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Falmer Press.
- Vannier and Gallahue (1978), *Teaching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6th), W.B. Saunders.
- Werner and Burton (1979), *Learning through Movement*, Mosby.
- Willgoose, C.E. (1979), *The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3rd ed.), Prentice-Hall, Inc.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s

Sinbok Kang

### Abstract

An effort had been made to improve the school programs. The success of the program in schools is dependent upon how the school program be implemented with rational foundations and specific guidel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be evaluated and improved as the results of a learner's performance in school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ays in which teachers plan and implement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to give the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The present status and emerging problems on the implement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re as follows:

1. There is the irrationality of the purpose of the physical education.
2. There is the unsystematization in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physical education contents.
3. There is the standardization of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from this investigation, the following basic guidelines can be made for the planning and implemetinng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licuum which has real bearing on our present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s.

1.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plan for life-long physical education.
2. The purposes and objectives should be emphasized more process than product, and be considered the whole aspect in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3. The written purposes and objective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mmunity and the school. Also, the main components such as characteristics, needs, expectations and levels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4. The physic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should matter highest ranked aims of physical fitness, and in addition, proceed the physical education program with the conceptual approach in learning.

5.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constructed and taught on the basis of developmental processes and stages, needs, and interests of each individual.
6.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school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cepts of mastery learning.